

# 지역 건설업 기나긴 '침체의 늪'

## 광주, 전국 수주액 0.9% 불과 ... 광역시중 최하위 전남, 작년 수주 100억 미만 소규모 공사 98%

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 전남의 경우 전년보다 수주액이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의 수주 규모는 경기 침체 전인 2007년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의 건설업계는 지난해 등록업체의 절반 가량이 수주 실적 '0'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와 전남도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889개 등록업체의 총수주액은 8조5000억원(잠정치)으로 2013년에 비해 970억원, 비율로는 1.2% 증가했다. 1사당 평균 수주액도 2011년 80억6000억원, 2012년 87억9000억원, 2013년 93억6000억원에 이어 지난

해 95억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정부의 SOC예산 증가와 민간 건설경기 약진 등으로 3.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커진 외형과 달리 속으로는 고풍하고 있다. 전남의 중소 건설업체가 지난해 수주한 7138건 중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7004건으로 무려 98.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체 수주액 중 도급 순위 국내 100위 이내 중견 건설사 5~6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해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중소기업에 침체를 겪으면서 업체 수도 줄었다. 2011년 948개였으나 2012년 939개, 2013

년 897개로 줄었고, 2014년에는 889개로 집계됐다.

제조업과 더불어 전남 산업계의 양대 축인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도 2009년 7.8%이던 것이 2011년 6.8%로 줄었고, 2013년에는 5.7%로 6% '벽'마저 무너졌다.

광주지역 건설업계 사정은 더하다.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은 공공과 민간 모두 합쳐 8257억원이었는데, 이는 전국 수주액(88조4230억원)의 0.9%에 불과했다. 등록업체 수 점유율 2.3%(1만 969개사 중 259개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수주액을 보더라도 17개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의 3분의 1, 세종시의 4분의 1수준이고, 부산과 인천에 비해서도 각각 7분의 1, 6분의 1수준

이다. 평균수주액도 32억원으로 광역시중 최하위고, 전국 평균 수주액(81%)의 40% 수준에 그쳤다.

전망도 어둡다. 대형 국책 건설사업이 거의 없는데다, 지자체 또한 재원 부족에 따른 신규 물량을 줄이고 있어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재정건전화에 위해 공기업 투자 억제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공공공사의 부진도 불가피하다.

광주시회 관계자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건설취업자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수주액은 최하위를 기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제고를 위해 안전, 방재, 복지, 교통, 노후시설 등 생활밀착형 건설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35.86 (-11.14)
- ▲ 금리 (국고채 3년) 2.06% (+0.08)
- ▼ 코스닥 592.95 (-0.80)
- ▼ 환율 (USD) 1089.70원 (-5.20)



10일 한국전력 본사 비전홀에서 한전과 나주시 36개 마을 이장단이 '1차1촌' 자매결연식을 맺고 있다. <한전 제공>

## 한전, 나주 등 64개 마을과 '1차1촌' 결연

### 최초로 본사 36개 처·실, 전남본부 28개 사업장 참여 직원들 자매결연 마을 방문 3000여 어르신 점심 접대

한국전력 본사의 모든 부서가 나주시 36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했다. 한전은 그동안 지사 단위로 1사1촌 자매결연 행사를 가져왔으나 본사 전체 조직이 한 지역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0일 본사 비전홀에서 36개 처·실과 나주시 36개 마을 간 1차1촌 자매결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은 한전의 본사 이전을 계기로 나주시 및 전남도민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한전 나주시대를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는 자매결연 체결 마을의 이장단을 초대해 신사육을 소개하고, 나주시 시립국악단 공연 감상 및 협약서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가 끝난 뒤 한전 직원들은 자매결연한 마을을

방문, 3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지역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한전은 이날 협약에서 생산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고, 재능나눔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자매결연 마을에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이웃이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28개 사업장도 이날 광주·전남지역 28개 마을과 같은 행사를 열어 한전은 이날 총 64개 마을과 1차(실·지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박정근 한전 부사장은 "태극기를 보면 나주의 지세가 서울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직원들이 빠르게 잘 적응하고 있다"며 "길거리에서나 식당에서 시·도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 감사하다. 이웃사촌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성원을 부탁했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 휘발유 공급가 8당 70원 올라 ... 기름값 급등할 듯

정유사들이 이번 주 휘발유 공급기준 가격을 8당 70원 이상 큰 폭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광주를 비롯한 전국 주유소 기름 값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사들은 1월 마지막 주에 8당 11원, 지난주 3원을 올린 데 이어 이번 주에 70원 넘게 올려 3주 연속 공급가를 올렸다.

10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는 휘발유 공급기준가를 지난주 대비 8당 72원 오른 1508원, GS칼텍스는 71원 오른 1503원에 책정했다. 경유값은 SK에

너지가 51원 올라 1324원, GS칼텍스가 54원 올라 1514원이 됐다.

이는 지난주(2월2~6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52.36달러로, 전주(1월26~30일)평균 44.57달러보다 7.79달러 오른데 따른 영향이다.

광주와 전남의 휘발유 평균값이 지난 8일부터 오르기 시작 10일 현재 8당 각각 1405원과 1407.95원으로 전일에 비해 3.30원과 0.42원의 오름세를 기록하는 등 반등 분위기다. /김대성기자 bigkim@

## "초콜릿도 해외직구가 저렴"

### 한국소비자원 조사

### 수입품보다 최대 47.7% 싸

밸런타인데이가 대목인 수입 초콜릿의 국내 판매가격이 배송료를 포함한 해외 직구(직접구매)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파는 수입 초콜릿 6개 제품의 해외 직구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렴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할 때 배송(대형)료와 배송기간을 고려해 관세 면제 한도인 15만원을 채워 사는 경우가 많다.

면세 한도 내에서 최대 수량을 사면 배송료(2만~5만원대)를 포함한 초콜

릿 해외 직구 가격이 수입 초콜릿의 국내 판매가보다 최소 9.5%, 최대 47.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구가와 국내 판매가 차이는 씨즈 캔디가 47.7%로 가장 크고 이어 고디바(41.5%), 로이스(38.4%), 레오니다스(26.3%), 레더라(11.6%), 미셀클뤼젤(9.5%) 순이었다. 판매 가격은 국내와 공식 온라인 기준이다.

단품으로 사면 배송료 때문에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직구가 비싼 경우가 있지만, 3개 제품은 배송료를 포함해도 단품 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싸다.

영국이나 미국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 판매가와 배송료를 합친 가격이 국내 공식 사이트 판매가보다 고디바는 26.6%, 레오니다스는 16.8%, 씨즈캔디는 11% 저렴했다. /연형뉴스



## 삼성전자, 냉장고 '세프컬렉션' 출시

삼성전자가 10일 높이를 7cm가량 낮춘 2015년형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세프컬렉션'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기존 모델보다 업그레이드 된 '지펠 T9000'과 '지펠 푸드쇼케이스' 등 2015년형 프리미엄 냉장고 신모델 20종을 출시했다.

<삼성전자 제공>

## 광주신보재단, 중기 업체당 5000만원 설 운영자금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자금을 특별보증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오는 25일까지 공급되며 물품구매대금 및 판매대금 회수지원과 설 명절 전 종업원 임금지급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최우선 지원된다. 설 대비 긴급자금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신용보증재단이 100% 전액보증서로 지원하고, 재단 보증료도 1% 고정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 영세소상공인의 금융 비용이 많은 부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석주 이사장은 "경기회복 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영세소상공인들이 이번 설 특별보증을 통해 자금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참숯**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b>소갈비살 기본가격</b>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대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6.25에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고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빅리더!!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혁신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형 브랜드로 손님들께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li> <li>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li> <li>공무원(5급-9급) 27-42세</li> <li>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li> <li>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li> <li>은행원, 연구원 29-49세</li> <li>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li> <li>사업가, 자영업 29-39세</li> <li>세무사, 연구원 29-48세</li> <li>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li> <li>교사, 교수 28-49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li> <li>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li> <li>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li> <li>의사, 약사, 교사 25-39세</li> <li>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li> <li>공무원(5급-9급) 27-42세</li> <li>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li> <li>간호사, 은행원 26-47세</li> <li>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li> <li>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li> <li>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 변호사 32-65세</li> <li>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li> <li>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li> <li>대기업 간부 36-59세</li> <li>회사원, 자영업 33-67세</li> <li>'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li> <li>VIP 희망 여성 29-53세</li> <li>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li> <li>공무원, 교사 32-58세</li> <li>간호사, 회사원 29-48세</li> <li>자영업, 가사 35-64세</li> <li>'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li> </ul>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4명 010 68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